

■■ 공단 출범 및 CI 선포식 개최

공단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3시까지 인천 송도(갯벌타워)소재 공단 본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학계대표 등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출범 및 CI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출범 기념행사는 새로이 공식 출범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선박안전 관련 전문기술단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단이 준비한 각종 행사와 CI를 선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이은 해양수산부차관(왼쪽)으로부터 공단기를 전달받아 흔들고 있다.

공단은 출범기념 행사로 CI 선포식 및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 김성규 이사장과 관계자들의 제막식 장면



■ ■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JCI)이사장 초청 특별 강연 실시

- 레이저선박의 안전검사 및 수상레저의 활성화에 대하여 -



▲ JCI 이사장 특별강연 장면

공단은 지난 4월 17일 일본 소형선박검사기구(JCI) 타니노(谷野龍一郎)이사장을 초청하여 레이저선박 등 소형선박검사제도의 현안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강연은 지난 4월4일 출범한 공단발족을 기념하고, 2003년 12월 양기관간 체결한 기술교류협력협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현재 약 45만 척의 수상레저선박의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JCI 타니노 이사장의 특별강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수상레저선박의

증가에 대비하고,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JCI 타니노 이사장은 특별강연을 통하여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류시설(마리나, 피셔리나 등) 이용수역을 확대하고, 바다역을 통한 종합적인 레저이용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대부분이 FRP 선박인 레이저선박의 폐선에 따른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공단의 역할이 주목된다.

한편 공단 김성규 이사장은 이번 특별강연이 공단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공단이 수상레저선박에 대한 토탈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양기관이 보다 활발한 기술교류를 통해 상호 win-win 하는 기관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JCI 이사장 특별강연 장면